

# 15세기 특이처격어에 대한 연구

박형우\*

|| 차례 ||

1. 서론
2. 연구 방법
3. 15세기 특이처격어의 처격 조사 결합 양상 분석
4. 특이처격어의 조건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15세기의 특이처격어의 처격 조사 결합 양상을 파악하고, 특이처격어가 성조에 의해 결정된다는 주장의 타당성의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 과정을 통해 밝힌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이처격어의 처격 조사 결합 양상은 15세기 내에서도 다양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전형적인 특이처격어> (37개)

낫, 목, 갯, 우ㅎ, 앞, 밧ㄱ, 쪽, 밧, 새박, 나조ㅎ, 봄, ㄱ술ㅎ, 적, 밭, ㄴㄹ/닐, 구무, 물, 나모, 잇, 섬, 콩, 국, 보ㅎ, ㄴㄹ, 시르/실, 독, 살, 술, 노ㅎ, 빗뚫ㄱ; 결, 녀, 밭, 아춤, 밤, 집, 돛ㄱ[蓆]

<‘-에/에’를 주로 취하는 특이처격어> (33개)

술ㅎ, 손바당(손바당), 안ㅎ, 돌, 날, 설, 하늘ㅎ, 굴형, 굴, 섬, 뫼ㅎ, ㄱ름, 짜ㅎ, 돌ㅎ, 물, 물결(물결), 섬, 길ㅎ, 수풀, 술, ㄱㄹ, 터ㅎ, 우물, ㅂ름, 옷, 긴ㅎ, 갈ㅎ, 값닐ㅎ, 열여덟, 원, 설흔; 곧, 그릇

---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특이처격과 일반처격을 모두 취하는 특이처격어> (14개)

불ㅎ, 니마ㅎ, 터럭, ㄹ, 낫, ㅁ술ㅎ, ㄱ을ㅎ, ㅎ, 꿀, 무덤, 꽃, 브쉽, 뒷간, 거적

둘째, 성조와 관련하여 특이처격어의 성립 조건을 논의하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고유어의 1음절 특이처격어를 중심으로 검증한 결과 상당수의 특이처격어가 평성의 성조를 가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지 않은 특이처격어도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주제어 : 처격 조사, 특이처격어, -익/의, 성조, 형태론적 이형태

## 1. 서론

중세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논의할 때 처소의 부사격 조사가 쓰일 자리에 관형격 조사와 형태와 같은 ‘-익’과 ‘-의’가 쓰인다는 점에 대해 연구자들은 오래 전부터 주목해 왔다. 이러한 처격 조사를 일반적인 처격 조사 ‘-애/에’와 달리 ‘특이처격’이라고 불러 왔다. 또한 ‘-익/의’가 처격 조사로 쓰이는 명사에 대해서 소위 ‘특이처격어’라고 하여 논의하여 왔으며, 이러한 처격 조사의 선택은 형태론적으로 제약된 것으로 보아 왔다. 이러한 특이처격어는 고영근(2004:102)에 의하면 고유어와 한자어를 합쳐 10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모음조화에 따른 조사의 선택 이외에 처격 조사에서 이러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은 중세국어뿐만 아니라 고대국어의 자료와도 일정한 연계성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특이처격어의 범위가 선행 연구에 따라 일정하지 않으며<sup>1)</sup>, 일반적으로 특이처격어로 분류된 명사 중에서도 ‘-애/에’와 혼용을 보이는 경우가 있어서 특이처격어를 지정하는 데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1) 崔世和(1964)에서는 한자어를 포함하여 115개, 李崇寧(1980)에서는 121개를 제시하고 있다(上保 敏, 2007:291에서 재인용).

필요하다는 점이다. 또한 특이처격어와 관련하여 그 제약성을 설명하는 방식에도 일정한 이견이 있다. 일반적으로 형태론적 이형태로 보는 입장 외에도 외국의 학자들이긴 하지만 일부는 성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에 주목하여 15세기 자료에서 소위 특이처격어가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는지 검토하고, 특이처격의 선택 조건과 관련한 논의에 대해 그 선택 조건의 타당성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본고에서는 15세기 국어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특이처격어의 처격 조사 결합의 양상을 단어별로 파악하여 그 유형에 따라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특이처격어에 해당하는 단어들을 중심으로 성조에 의한 특이처격 선택이라는 조건의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 2. 연구 방법

15세기의 말뭉치 자료를 중심으로 특이처격어로 구분된 명사들의 처격 조사 선택의 경향성을 파악하고 선택 관계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분석 대상이 되는 특이처격어를 고유어로 한정하고<sup>2)</sup> 李崇寧(1981:174~175)에서 제시한 97개의 명사를 대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명사가 합성어를 이룬 경우까지 포함하여 조사하되 보다 명확한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격 조사에 다시 다른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는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한다.<sup>3)</sup> 분석의 대상이 될 명사를 모두 보이면 다음과 같다.

2) 한자어의 경우에는 합성어 여부에 따라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일부 한자어의 경우 합성어가 되는 경우에 성조가 변화하는 경우도 있어서 일단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목록 1] 특이치격어<sup>4)</sup>

1. 身體: 낫[面], 볼[臂], 목[頸], 니마[額], 터럭[毛], 살[肌肉], 손바당  
(손바당)[掌], 꺾[皮]
2. 方位: 위[上], 앞[前], 곁[傍], 바깥[外], 갓[邊], 쪽[片, 方], 녁[方向], 밧  
(밭치), 밑[底], 안[內]
3. 天文, 時令: 새벽[曉], 아침[朝], 낮[晝], 나조[暮], 밤[夜], 봄[春], 마  
[秋], 적[時], 달[月], 날[日], 설[正月, 歲], 하늘[天],
4. 地理, 鑛物: 마술[村], 마울[郡邑], 밭[場], 밭[田], 나르/날[津], 구무  
[孔], 굴형[鑿], 굴[穴], 곧[所], 소[澤], 섬[島], 흙[土], 물[陸], 뫼[山],  
마름[江], 짜[地], 골[谷], 돌[石], 물[水], 물결/몹결[波], 언[崖], 언  
덕[崖], 냇[崖], 심[泉], 무덤[墓], 길[道]
5. 植物: 나무[木], 잇[苔], 섬[薪], 꽃[花], 콩[菽], 수풀[林]
6. 飲食: 술[酒], 꿀[蜜], 마[麵], 국[湯]
7. 家屋: 집[家], 보[棟], 마[梁], 브엎[廚], 뒹간[厠], 터[基], 우물[井],  
벽[壁]
8. 家具: 시르/실[甌], 독[甕], 섬[篋], 돛[蓆], 불무[爐], 살[簞], 자르/자르  
[袋], 솥[鼎], 옷[衣], 자[尺], 갓[笠], 거적[苫], 그릇[器], 긴[綬], 노  
[繩], 갈[刀], 갓[刀]
9. 數詞: 열여덟[十八], 열설[十歲], 쉰[五十], 설흔[三十]
10. 車・舟: 돛[帆], 밧돛[帆]

또한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는 21세기 세종계획에 의해 구축된 15세기  
역사자료 말뭉치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처격 조사 ‘-이’와 ‘-애’의 선택에  
서 ‘.’의 음가 변화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의 음가 소실이 대체로 16세기

- 
- 3) 처격 조사 다음에 보조사가 결합한 예도 일부 나타난다. 그런데 이런 경우 특이치격조  
사의 쓰임이 체언뿐만 아니라 후행 조사와의 관계 속에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  
한 문제점을 배제하기 위해 후행 보조사가 결합한 예를 분석에서 제외한다. ‘-이서,  
-의서, -에서, -에서’ 등도 마찬가지이다.
  - 4) 제시된 목록의 형태가 원문에는 음소적 표기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기본 형태  
를 밝히는 방식으로 바꿨다. ‘ㅎ’ 탈락 체언의 경우에도 말음의 ‘ㅎ’을 밝혀 옮긴다.

비어두음절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6세기의 자료에서 특이처격 ‘익’과 일반처격 ‘애’의 구분을 논의하는 데에 일정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말뭉치 자료에 대한 분석은 15세기 자료에 한정하여 진행한다. 말뭉치 자료 분석에는 ‘uniconc’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일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에는 영인본 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검토한다.

21세기 세종계획에 따라 구축된 15세기 말뭉치 자료의 종류와 그에 해당하는 약어는 다음과 같다.

| 연대    | 문헌        | 약어     |
|-------|-----------|--------|
| 1446년 | 훈민정음      | <훈언>   |
| 1447년 | 석보상절      | <釋詳>   |
| 1447년 | 용비어천가     | <龍歌>   |
| 1447년 | 월인천강지곡    | <월천>   |
| 1459년 | 월인석보      | <月釋>   |
| 1461년 | 능엄경언해     | <楞嚴>   |
| 1463년 | 법화경언해     | <法華>   |
| 1464년 | 금강경언해     | <金剛>   |
| 1464년 | 반야심경언해    | <반야>   |
| 1464년 | 상원사중창권선문  | <상원>   |
| 1464년 | 선종영가집     | <永嘉>   |
| 1464년 | 아미타경언해    | <阿彌>   |
| 1465년 | 원각경언해     | <원각>   |
| 1466년 | 구급방언해     | <구급방>  |
| 1467년 | 목우자수심결    | <牧牛子>  |
| 1467년 | 몽산법어      | <蒙山>   |
| 1475년 | 내훈        | <內訓>   |
| 1481년 | 두시언해      | <杜詩>   |
| 1481년 | 삼강행실도(런던) | <三綱런던> |
| 1482년 | 금강경삼가해    | <金三>   |

|                      |       |
|----------------------|-------|
| 1482년 남명집언해 .....    | <南明>  |
| 1485년 관음경언해 .....    | <觀音經> |
| 1489년 구급간이방 .....    | <救簡>  |
| 1496년 육조육사법보단경 ..... | <육조>  |
| 1496년 진언권공 .....     | <권공>  |
| 1500년 개간법화경 .....    | <개법>  |

### 3. 15세기 특이처격어의 처격 조사 결합 양상 분석

일반적으로 중세국어의 특이처격어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해당 명사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관련 명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목록에 제시된 명사들이 특이처격을 취하는 정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했다. 이러한 목록 중심의 연구가 고대국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특이처격의 존재를 확인한다는 면에서는 큰 가치가 있으나 중세국어에서 나타나는 특이처격어의 개별적 특성과 그 변화의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방식의 연구가 많지 않은 것은 과거의 연구 상황이 관련 문헌에서 특이처격어의 처격 조사 결합 양상을 통계적으로 파악하기에 매우 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sup>5)</sup>

본고에서는 15세기로 자료를 한정하고 특이처격어 목록에 포함된 명사의 처격 조사 결합 양상을 분석하여 특이처격 ‘-이/의’를 취하는 명사, 일반 처격 ‘-애/에’를 취하는 명사, 그리고 이 두 유형이 혼용되는 명사로 분류하

5)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특이처격어에 해당하는 개별 명사에 따라 처격 조사의 결합 양상을 양적으로 다루어 경향을 파악한 洪允杓(1969)는 특이처격어의 정도성을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다. 본고 역시 이러한 관점에서 출발한 것으로 洪允杓(1969)와 비교하여 검토 자료의 폭을 더욱 넓히고 정밀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명사는 15세기 자료를 검토한 결과 특이처격과 일반처격을 취한 예나 나타나지 않아서 분석에서 제외한다.

[목록 2] 처격을 취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 특이처격어(13개)

말, 소ᄃᆞ, 언, 언덕, 낭, 쌀, 섬, 불무, 자르/자르, 자ᄃᆞ, 간, 열설, 돛ᄃᆞ[帆]

### 1) 특이처격 ‘-이/의’를 취하는 명사

15세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일반적으로 특이처격으로 분류되는 명사들 중에서 특이처격을 주로 취하는 것들이 발견된다. 그러나 이러한 명사들이 앞에서 살펴본 목록에 제시된 명사 대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명사들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예외가 나타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를 나눠 제시한다.

#### (1) 예외 없이 특이처격을 취하는 명사

특이처격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사 중에서 15세기 국어사 말뭉치에서 예외 없이 특이처격을 취하는 명사는 다음과 같다.

[목록 3] ‘-이/의’만을 처격 조사로 취하는 특이처격어(30개)

낚, 목, 갯, 우ᄃᆞ, 앞, 밧ᄃᆞ, 쪽, 밧, 새박, 나조ᄃᆞ, 봄, ᄃᆞᄃᆞ, 적, 밧, 느르/늘, 구무, 물, 나모, 잇, 섬, 콩, 국, 보ᄃᆞ, 믈, 시르/실, 독, 살, 술, 노ᄃᆞ, 빗ᄃᆞ

‘목록 3’에 제시된 특이처격어 중에서는 ‘갯, 쪽, 밧, 새박, 섬, 콩, 국, 보ᄃᆞ, 시르/실, 독, 살, 노ᄃᆞ, 빗ᄃᆞ’의 경우에는 15세기 자료에서 나타난 예가 모두 5개 미만으로 매우 적다. 특히 그 중에서 ‘밧, 새박, 콩, 보ᄃᆞ, 살, 노ᄃᆞ, 빗ᄃᆞ’은 그 예문이 하나만 나타나고 있다. 관련 예문을 보이면 다음

과 같다.

1. (가) 바느리 가치 들어든 히 멀며 <구급방하7a>
  - (나) 사르미 므슴 빠괴 노코 니벳는 옷 ㄱ외로 두프면 <觀音經7b>
  - (다) 阿難과 羅雲은 바치 셋습더니 <月釋10:10a>
  - (라) 演若達多 | 므득 새바기 거우루로 ㄴ출 비치오 <원각서46b>
  - (마) 實智 | 境을 비취유미 브리 서비 붓듯 <永嘉上107b-108a>
  - (바) 새들흔 甚히 ㄱ숯 조과 콩이 술지거늘 <杜詩19:23a>
  - (사) 섯거 고르게 ㅎ야 ㅅㅅ국의 글혀 머그라 <救簡1:12b>
  - (아) 大瞿小舍乘甞엿 藏ㅅㅅ이 보히 ㄱ득ㅎ며 <金三4:35b>
  - (자) 소음을 만히 실의 떠 덤게 ㅎ야 <救簡1:66a>
  - (차) 버미 고기란 도기 다마 내해 묻고 <三綱런던孝32>
  - (카) 수리 ㅅㅅ어늘 사티 눅고져 스랑ㅎ고 <杜詩15:9a>
  - (타) 赤驥 | 긴 노히 놀리 미여 이시나 <杜詩3:55a>
  - (파) 가는 빗듯긴 ㅅㅅ비치 좇놋다 <杜詩20:48b>

특히 이러한 특이처격어의 경우 모음조화가 파괴된 예도 일부 나타난다는 점이 흥미롭다. ‘목, 앞, 밧ㄱ, 나모, ㅅㅅ’ 등이 그 예인데, 15세기 자료에서 모음조화가 파괴된 조사와 어미 결합의 예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이처격을 취하는 경우에도 일부 관련 예들이 나타나고 있다.<sup>6)</sup> 이와 관련한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가) ㄱ라 골아 ㅅ 돈올 ㅅㅅ닐 모기 불로디 <구급방상42b>
  - (나) 알피 문즈오산 中엔 ㅅㅅ를 몬져 ㅎ시고 <원각하1-1:58a>
  - (다) 太子 | ㅅ 西門 밧기 나가시니 <釋詳3:18b>

6) 물론 이렇게 모음조화가 파괴된 예가 전반적으로는 많지 않아서 단순한 오기(誤記)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밧기’와 같은 경우에는 그 수가 오히려 모음조화를 따르는 ‘밧기’의 용례보다 훨씬 더 많다. 특이처격어 중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 명사들의 경우에 대해서는 더 정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래) 남그 올라 오래 사름 업슨 後에사 <法華1:164a>

(매) 내야도 흐리며 서비 췌려 쉬구에 브리며 <月釋18:40a>

## (2) 일부 예에서 일반처격을 취하는 명사

특이처격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극히 일부 예에서 일반처격을 취한 예가 나타나는 특이처격어가 있다. 이러한 명사는 전체 처격을 취하는 예 중에서 일반처격을 취하는 비율이 낮는데 일단 10% 미만인 경우<sup>7)</sup>만 정리하여 그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록 4] 10% 미만으로 일반처격을 취하는 특이처격어(7개)

결, 녀, 밭, 아춤, 밤, 집, 돛<sup>7)</sup>[蓆]

〈표 1〉 ‘목록 4’의 처격 사용 비율

| 번호 | 명사              | 형태 | 용례  | 비율   | 형태        | 용례  | 비율   | 형태  | 용례 | 비율  | 형태  | 용례 | 비율  | 합계  |
|----|-----------------|----|-----|------|-----------|-----|------|-----|----|-----|-----|----|-----|-----|
| 1  | 결               | 겨터 | 0   | 0.0  | 겨터        | 74  | 98.7 | 겨태  | 0  | 0.0 | 겨테  | 1  | 1.3 | 75  |
| 2  | 녀               | 녀지 | 0   | 0.0  | 녀그/<br>녀그 | 114 | 99.1 | 녀개  | 0  | 0.0 | 녀게  | 1  | 0.9 | 115 |
| 3  | 밭               | 미터 | 2   | 3.6  | 미터        | 48  | 94.1 | 미태  | 0  | 0.0 | 미테  | 1  | 2.0 | 51  |
| 4  | 아춤              | 아춤 | 80  | 96.4 | 아춤        | 0   | 0.0  | 아춤매 | 3  | 3.6 | 아춤매 | 0  | 0.0 | 83  |
| 5  | 밤               | 바미 | 193 | 98.5 | 바미        | 0   | 0.0  | 바매  | 3  | 1.5 | 바메  | 0  | 0.0 | 196 |
| 6  | 집               | 지비 | 0   | 0.0  | 지비        | 307 | 99.7 | 지배  | 0  | 0.0 | 집에  | 1  | 0.3 | 308 |
| 7  | 돛 <sup>7)</sup> | 돛지 | 56  | 18.5 | 돛그        | 21  | 77.8 | 돛개  | 0  | 0.0 | 돛게  | 1  | 3.7 | 27  |

7) 처격 혼용의 경우에 오기(誤記)의 문제를 고려할 수 있다. 사실 오기와 혼용을 결정할 일정한 비율의 기준은 공인된 것이 없다. 또한 특이처격은 결국 일반처격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더욱 오기와 혼용의 문제를 구분하기 어렵다. 그래서 본고에서는 10%를 기준으로 일정한 경향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10% 이하의 혼용인 경우 주된 경향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자연스럽게 오기의 문제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밑8), 돛’은 특이처격이나 일반처격을 취하는 경우에 모음 조화를 어긴 예도 나타난다. 물론 이러한 예는 그 수가 많지는 않다. 일종의 모음조화에 어긋나는 예외적 현상을 보이는 예문이다. 관련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3. (가) ㄴ느리 처 반 돈을 헛 미터 녀흐라 <救簡1:45b>

(나) 엇데 이 혼 돛게 문득 다른 마리 겨시리오 <法華序22a>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5세기 자료에서 특이처격어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예는 일부 일반처격을 취하는 예를 포함하여 37개의 예가 나타나고 있다. 전체 목록에서 제시한 97개 명사 중 예가 나타나지 않는 13개를 제외하고 84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특이처격어의 전형성을 보이는 명사는 30개 정도로 전체의 35.7%에 해당한다. 전체 목록인 97개를 기준으로 하면 30.9%로 그 비율이 더욱 줄어들게 된다. 여기에 극히 일부만 일반처격도 취하는 예가 나타나는 7개 명사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84개를 기준으로 할 때는 44.0%, 97개를 기준으로 하면 38.1% 정도에 해당한다.

## 2) 일반처격 ‘-애/에’를 취하는 명사

특이처격어는 일반적으로 일반처격을 취하지 않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특이처격어로 제시된 명사 목록 중에서도 15세기 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히려 특이처격보다도 일반처격을 취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예들이 상당히 많다. 특이처격어라는 개념에 어울리지 않게 15세기 자료에서 일반처격만을 취하는 경우와 극히 일부만 특이처격

8) ‘밑’의 경우에는 모음이 ‘ㅣ’로 중성이므로 굳이 모음조화의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으나 다른 ‘ㅣ’ 모음이 쓰인 예의 경우에는 ‘-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여기에서는 일단 예외가 되는 것으로 다루었다.

을 취할 뿐 일반적으로 일반처격을 취하는 경우로 나눠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예외 없이 일반처격을 취하는 명사

李崇寧(1981)에서 특이처격어로 분류한 명사임에도 불구하고 특이처격 대신에 일반처격만 취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본고에서는 15세기의 자료에 한하여 조사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명사 중 일부는 16세기 자료에서 특이처격을 취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대국어와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의 음가 변화가 16세기 비어두음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15세기에 나타나지 않던 특이처격이 16세기에 다시 나타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보다 복잡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sup>9)</sup>

특이처격으로 분류된 명사 중에서 15세기 자료에서 특이처격을 취한 예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목록 5] 일반처격만을 취하는 특이처격어(31개)

술ᄃᆞ, 손바당(손바당), 안ᄃᆞ, 돌, 날, 설, 하늘ᄃᆞ, 굴형, 굴, 섬, 뫼ᄃᆞ, ᄃᆞᄃ, 싸ᄃᆞ, 돌ᄃᆞ, 물, 물결(물결), 십, 길ᄃᆞ, 수풀, 술, ᄃᆞᄃ, 터ᄃᆞ, 우물, 벼ᄃᆞ, 옷, 긴ᄃᆞ, 갈ᄃᆞ, 값ᄃᆞ, 열여ᄃᆞ, 쉼, 설ᄃᆞ

‘목록 5’ 중에서 ‘술ᄃᆞ, 돌, 하늘ᄃᆞ, 뫼ᄃᆞ, ᄃᆞᄃ, 싸ᄃᆞ, 돌ᄃᆞ, 물, 물결, 길ᄃᆞ, 술, 벼ᄃᆞ, 옷, 그릇’의 경우에는 ‘-ᄃᆞ/의’를 취한 예가 일부 나타나기는 하지

9) 본고에서 15세기 자료에서 일반처격을 주로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명사들이 고대국어 시기에 과연 특이처격어였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고대국어 자료의 제한과 해석의 한계로 인해 일정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특이처격어의 변천을 전제로 한다고 해도 표기의 보수성을 고려한다면 그 변화의 시기가 언제인지를 명확히 하는 데에는 현재로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만 이들의 경우에는 모두 소위 주어적 속격에 해당하는 예이기 때문에 일단 특이처격을 취한 예로 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4. (가) 갓과 **술히** 살쥬미오 두푼 놀애논 터러글 가줄비시고 <法華2:105b>

(나) 노가 흰히 스므초미 **득히** 불곰 곤히시니라 <法華6:165b>

(다) **하늘히** 尊존히논 배며 法법海항의 가는 배라 <金三序9a>

(라) 프른 **피히** 노포미 ㄱ리오디 몬히도다 <杜詩5:36b>

(마) 서늘흔 ㄱ~~ㅅ~~히 홀로미 ㅅ히 ㄱ~~ㅅ~~니 <杜詩14:22a>

(바) **짜히** 노푼며 ㄴ가보물 조차 다르듯 히니라 <月釋25:21b>

(사) 프른 **돌히** 佳麗호매 므스물 슬후니 <杜詩14:35a>

(아) 黎는 **므히** 거무미오 墨은 브릭 거무미라 <法華6:14a>

(자) 엇데 놀라운 **몹겨히** 두위이주물 보리오 <杜詩8:11b>

(차) 떠러 브러 **길히** 窮困호물 스랑히시닛다 <杜詩19:9a>

(카) 시르미 하 **수히** 醉호물 므더니 너기노라 <杜詩23:7b>

(타) **브릭히** 두루 홀로물 득스며 <楞嚴10:57a>

(파) 纜~~람~~삼온 **오시** 허룬 양지라 <南明上32a>

이러한 목록의 명사 중에서 ‘짜히, 물’은 일반처격을 취할 때 모음조화에 맞지 않는 예가 일부 나타나는데 그 수는 매우 적다. 관련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 (가) 五體를 짜헤 더디샤 이ㄱ티 세번 請히샤 <원각하1-1:9a>

(나) 몬저 기론 우몹므래 므라거든 ㄱ라 <救簡3:36a>

(2) 일부 예에서 특이처격을 취하는 명사

일반처격을 주로 취하는 것으로 나타난 특이처격어 중에서도 일부는 그 용례가 적기는 하지만 특이처격을 취한 예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 경우

는 앞에서 살펴본 주어적 속격에 해당하는 예를 제외하고 처격을 취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살펴본 것이다. 분석한 자료 중에서 특이처격을 취한 예가 전체 처격의 예 중에서 10% 미만에 해당하는 명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목록 6] 10% 미만으로 특이처격을 취하는 특이처격어(2개)

곧, 그릇

〈표 2〉 ‘목록 6’의 처격 사용 비율

| 번호 | 명사 | 형태  | 용례 | 비율  | 형태  | 용례 | 비율  | 형태  | 용례  | 비율   | 형태  | 용례 | 비율   | 합계  |
|----|----|-----|----|-----|-----|----|-----|-----|-----|------|-----|----|------|-----|
| 1  | 곧  | 고더  | 3  | 1.0 | 고디  | 0  | 0.0 | 고대  | 297 | 99.0 | 고테  | 0  | 0.0  | 300 |
| 2  | 그릇 | 그르식 | 0  | 0.0 | 그르식 | 1  | 2.6 | 그르세 | 0   | 0.0  | 그르세 | 37 | 97.4 | 38  |

이러한 명사의 경우 특이처격어로 분류되어 있으나 실제로 15세기 자료에서 특이처격보다는 일반처격을 취하는 예가 매우 많고 한두 개의 예에서만 특이처격을 취한 예가 나타날 뿐이며 처격을 취할 때 모음조화가 파괴되는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한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6. (가) 佛祖入 機緣에 ㄹ린 고더 이시면 <蒙山45ab>

(나) 님금이 나몬 거슬 주어시든 그르식 시슬 거스란 손디 마오 <內訓 1:9b>

이상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15세기 자료에서 소위 특이처격어로 분류된 명사 중에서도 33개의 명사는 일반적인 처격 조사를 취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특이처격어로 보는 데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형적인 특이처격어라 할 수 있는 목록이 일부 예외를 포함하여 37개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이렇게 특이처격어로 분류되었음에도 특이처격과 관련이 없

어 보이는 목록도 15세기 자료에서는 33개나 나타나 거의 그 수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격의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 13개를 제외하고 84개를 기준으로 한다면 특이처격을 전혀 취하지 않는 명사는 31개 정도로 전체의 36.9%에 해당한다. 전체 목록인 97개를 기준으로 하면 32.0%로 그 비율이 더욱 줄어들지만 전형적인 특이처격어보다는 조금 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극히 일부만 특이처격을 취하는 예가 나타나는 2개의 명사를 포함하여 계산하면 84개를 기준으로 할 때는 39.3%, 97개를 기준으로 하면 34.0% 정도가 되는데 이들의 경우에는 15세기를 기준으로 할 때 특이처격어로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과거 특이처격을 취하던 고유어의 특이처격어가 15세기 들어서면서 일반처격을 취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특이처격과 일반처격의 이중적인 형태의 조사 선택 문제가 하나의 형태로 통일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는 것이고 ‘목록 5’와 ‘목록 6’의 예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어느 정도 완결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3) ‘-이/의’와 ‘-애/에’가 혼용되는 명사

李崇寧(1981)에서 특이처격어로 분류되었으나 특이처격과 일반처격을 취하는 용례를 비교할 때 양쪽의 형태를 일정 비율 이상 취하는 형태들도 나타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각각 10% 이상 양쪽의 형태를 취하는 명사를 분석 과정에서 정리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된 명사의 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목록 7] 특이처격과 일반처격을 10% 이상 취하는 특이처격어(14개)  
 불하, 니마하, 터럭, 궂, 낫, 므술하, ㄱ을하, 흙, 골, 무덤, 곳, 브쉽, 뒷간, 거적

〈표 3〉 ‘목록 7’의 처격 사용 비율

| 번호 | 명사  | 형태  | 용례 | 비율   | 형태  | 용례 | 비율   | 형태          | 용례  | 비율   | 형태  | 용례 | 비율   | 합계  |
|----|-----|-----|----|------|-----|----|------|-------------|-----|------|-----|----|------|-----|
| 1  | 불ㅎ  | 불히  | 7  | 70.0 | 불희  | 0  | 0.0  | 불해          | 3   | 30.0 | 불헤  | 0  | 0.0  | 10  |
| 2  | 니마ㅎ | 니마히 | 2  | 40.0 | 니마희 | 1  | 20.0 | 니마해         | 2   | 40.0 | 니마헤 | 0  | 0.0  | 5   |
| 3  | 터럭  | 터러기 | 0  | 0.0  | 터러긔 | 1  | 50.0 | 터러개         | 0   | 0.0  | 터러게 | 1  | 50.0 | 2   |
| 4  | 궤   | 궤식  | 92 | 27.8 | 궤희  | 1  | 0.3  | 궤새/<br>궤새   | 237 | 71.6 | 궤헤  | 1  | 0.3  | 331 |
| 5  | 낫   | 나지  | 38 | 86.4 | 나긔  | 0  | 0.0  | 나재          | 5   | 11.4 | 나제  | 1  | 2.3  | 44  |
| 6  | 궤술ㅎ | 궤술히 | 23 | 59.0 | 궤술희 | 0  | 0.0  | 궤술해         | 16  | 41.0 | 궤술헤 | 0  | 0.0  | 39  |
| 7  | 궤울ㅎ | 궤울히 | 29 | 82.9 | 궤울희 | 0  | 0.0  | 궤울해         | 6   | 17.1 | 궤울헤 | 0  | 0.0  | 35  |
| 8  | 흙   | 흙기  | 21 | 77.8 | 흙긔  | 3  | 11.1 | 흙개          | 3   | 11.1 | 흙게  | 0  | 0.0  | 27  |
| 9  | 골   | 고리  | 10 | 28.6 | 고긔  | 0  | 0.0  | 고래          | 25  | 71.4 | 고레  | 0  | 0.0  | 35  |
| 10 | 무덤  | 무더긔 | 0  | 0.0  | 무더희 | 1  | 14.3 | 무더매         | 0   | 0.0  | 무더메 | 6  | 85.7 | 7   |
| 11 | 궤   | 고지  | 20 | 83.3 | 고긔  | 0  | 0.0  | 고재          | 4   | 16.7 | 고제  | 0  | 0.0  | 24  |
| 12 | 브쉽  | 브셔빅 | 0  | 0.0  | 브셔빅 | 2  | 40.0 | 브셔배         | 0   | 0.0  | 브셔배 | 3  | 60.0 | 5   |
| 13 | 뒷간  | 뒷가니 | 1  | 16.7 | 뒷간의 | 1  | 16.7 | 뒷가내/<br>뒷간에 | 4   | 66.7 | 뒷간에 | 0  | 0.0  | 6   |
| 14 | 거적  | 거저긔 | 0  | 0.0  | 거저긔 | 2  | 66.7 | 거저개         | 0   | 0.0  | 거저에 | 1  | 33.3 | 3   |

‘목록 7’ 중에서 ‘낫, 흙, 궤’의 경우에는 비율은 10% 이상 일반처격을 취한 예가 보이는 경우이지만 그 용례의 수가 특이처격을 취한 용례에 비하여 비교적 매우 적어서 해당 명사를 15세기 자료에서 여전히 특이처격어로서 기능하고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은 예들이다. 이에 반하여 ‘무덤, 브쉽, 뒷간’의 경우에는 반대로 10% 이상 특이처격을 취하는 예가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일반처격을 취하는 명사여서 이미 특이처격어로서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예가 된다. ‘니마ㅎ, 터럭, 거적’의 경우에는 그 용례가 5개 이하로 매우 적어서 결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처격과 특이처격이 서로 혼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이처격과 일반처격을 모두 취한 나머지 예 중에서 ‘불ㅎ, 므술ㅎ, ㄱ울ㅎ’은 10개 이상의 용례가 확인되는데 일반처격보다 특이처격을 취하는 경우가 더 많고, ‘ㄹ, 골’의 경우에는 역시 충분한 용례가 나타나는데 일반처격을 취한 용례가 더 많다.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결국 특이처격어의 소멸 과정과 그 단계를 보여주는 단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로 특이처격 혹은 일반처격과 결합하는 명사와 비교하여 볼 때, 목록 7에 제시된 ‘불ㅎ, ㄹ, 므술ㅎ, ㄱ울ㅎ, 골’ 등은 15세기에 특이처격을 취하는 비율이 점차 줄어들면서 일반처격을 취하여 처격 조사 선택이 단일화되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여주는 용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한 예문을 보이면 다음과 같다.

7. (가) 眞珠로 불히 끼는 거식 열겻도다 <杜詩16:52a>

(가) 袈裟裳를 윈불해 엮고 <月釋25:27a>

(나) 長安人 몌ㄱ식 고은 사르미 하도다 <杜詩11:17a>

(나) 깊 ㄱ새 누엣거늘 太子 | 무르신대 <釋詳3:17b>

(다) 野干이 ㄱ외면 므술히 와 드리 <法華2:165b>

(다) 艱難ㅎ 므술해 가 옷 밥 求ㅎ더니 <月釋13:19b>

(라) 다룬 ㄱ울히 와 쏜자리 하니 버들 일코 <杜詩20:20a>

(라) 나라해 ㄱ울히 잇고 ㄱ울해 므술히 잇느니 <法華2:54b>

(마) 한 軍壘 | 뭇고리 ㄱ득ㅎ니 <杜詩11:48a>

(마) 내 뭇고래 잇거나 시혹 수플 나모 아래 잇거나 <法華2:9b>

이처럼 특이처격과 일반처격을 모두 취하여 다양한 예를 보여 주는 특이처격어는 15세기 자료에서 모두 14개 정도의 명사가 확인된다. 검토 대상이 된 84개의 명사를 기준으로 하면 이러한 명사는 16.7%에 해당한다. 또한 전체 목록의 97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4.4%를 차지한다.



#### 4. 특이처격어의 조건

중세국어의 특이처격과 관련한 외국인의 연구로는 志部昭平(1990)과 上保 敏(2007)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 성과를 국내의 연구와 비교해 보면 특이처격어의 조건과 관련하여 일정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 학자들의 경우 특이처격어의 조건에 대해 형태론적 이형태로 설명하고 있는 반면, 일본인 학자들의 경우에는 일부 형태론적 이형태를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특이처격의 선택이 근본적으로는 성조의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志部昭平(1990)과 上保 敏(2007)에서 주장하고 있는 선택 조건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志部昭平(1990)의 처격 선택의 조건

- a. 고유어의 경우는 어간말의 악센트가 平聲 즉 ‘低’일 때는 원칙적으로 ‘-이/의’를 취하고, 반대로 去聲 또는 上聲 즉 ‘高’일 때는 ‘-애/에’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b. 한자어의 경우는 어간말의 악센트에 상관없이 그 대부분이 ‘-애/에’를 취한다. 특히 2음절 한자어의 경우는 그 예외는 거의 없다.
- c. 다만 單音節, 平聲이자 사용빈도가 높아서 固有語化한 정도가 높다고 추정되는 것은 ‘-이/의’를 취하는 경우가 많고, 동일한 말이라도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南, 門, 瓶, 堂’ 등) 즉 이들은 한자어이면서도 固有語化하고 있어서 그 결과 a의 고유어의 법칙에 따라 例外가 생긴 것이다.<sup>10)</sup>

上保 敏(2007: 310~311)의 ‘-애/에’와 ‘-이/의’의 분포

① ‘-이/의’

- a. 고유어로서 1音節이며 악센트가 ‘L’인 것

10) 이상의 志部昭平(1990)의 내용은 上保 敏(2007:292~293)에서 재인용한 것이다.

- b. 고유어로서 ‘아침[朝], 낮[晝], 나조하[暮], 밤[夜]’과 같은 時令을 나타내는 것
  - c. 한자어로서 1音節이며 악센트가 ‘L’인 것의 일부, 즉 固有語化한 정도가 높다고 생각되는 ‘宮, 年, 堂, 東, 燈, 門, 坊, 瓶, 峯, 山, 床, 城’ 등(다만, 이들은 ‘-애/에’도 취할 수 있다.)
- ② ‘-애/에’
- a. 고유어로서 ①a~b 以外の 것
  - b. 한자어

사실 志部昭平(1990)과 上保 敏(2007) 두 일본 학자가 주장하는 특이처격어의 조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형태론적 이형태라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단순히 성조와 관련하여 선택의 문제를 다룬 것도 아니다. 조건을 잘 살펴보면 단어의 음절수뿐만 아니라 고유어화라는 것도 특이처격어의 일정한 조건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음절수와 관련한 조건을 한자어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한자끼리 결합하여 새로운 한자어를 이루는 단어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건이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려워진다. 사실 이러한 문제점은 1음절의 고유어가 선행하는 어근과 결합하여 합성어를 이루는 고유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sup>11)</sup> 또한 이러한 점을 배제하기 위해 단음절의 한자어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해도 고유어화라는 객관화하기 어려운 조건이 다시 개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역시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준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명사에 대해서는 ‘時令’이라는 의미적 조건을 기준으로 예외로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예외는 결국 ‘형태론적 이형태’라는 문

11)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1음절 평성의 고유어 명사가 합성어를 이루는 경우에도 특이처격을 취한 예들이 15세기 자료에서도 발견된다. 합성을 하는 어근도 고유어와 한자어 모두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용례를 몇 가지 보이면 다음과 같다.

장국의 달혀 김땡ㄴ라 머그라 <救簡3:85b>

묘은 아츰미니 히 東녀크 이시면 아츰미오 <月釋2:50a>

제에서 이러한 조건들이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건을 고유어에 한정해서 그 타당성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두 학자들이 주장하는 조건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을 정리하면 일단 고유어 1음절의 명사인 경우 성조가 ‘L’<sup>12)</sup>이면 처격 조사로 ‘-이/의’를 취한다는 것인데 李崇寧(1981)에서 제시한 특이처격어 97개를 대상으로 이러한 조건의 타당성을 검증해 보았다. 앞에서 밝힌 특이처격어 중에서 15세기 자료에서 특이처격을 선택한 예가 없는 경우와 다음절의 특이처격어를 제외하니 모두 43개의 특이처격어를 확인할 수 있었다.<sup>13)</sup> 이러한 특이처격어의 성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특이처격어의 성조

| 번호 | 단어 | 성조 <sup>14)</sup> | 번호 | 단어 | 성조 |
|----|----|-------------------|----|----|----|
| 1  | 놋  | —                 | 23 | 물  | —  |
| 2  | 불ㅎ | —                 | 24 | 되ㅎ | /  |
| 3  | 목  | —                 | 25 | 짜ㅎ | —  |
| 4  | 술ㅎ | —                 | 26 | 골  | /  |
| 5  | 갓  | —                 | 27 | 돌ㅎ | /  |
| 6  | 우ㅎ | —                 | 28 | 물  | —  |
| 7  | 얹  | —                 | 29 | 길ㅎ | —  |
| 8  | 결  | —                 | 30 | 잇  | —  |
| 9  | 밧ㄱ | —                 | 31 | 섭  | —  |

12) 上保 敏(2007)에서 ‘L’이 의미하는 바는 성조가 ‘平聲’ 즉 低調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다.

13) 검증의 대상이 되는 특이처격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나 ‘—’가 탈락하여 1음절이 되는 경우도 있는 명사는 일단 모두 제외하였다. 다만 ‘ㅎ’ 곡용 등과 같이 특수 곡용을 하는 1음절 명사는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특이처격을 취하는 예가 하나라도 나타나는 특이처격어는 모두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14) 성조와 관련하여 ‘—’, ‘/’, ‘ㄱ’ 등의 기호를 사용하였는데 각각 ‘평성’, ‘상성’, ‘거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    |   |        |    |       |   |
|----|---|--------|----|-------|---|
| 10 | ㄹ | /      | 32 | 꺾     | — |
| 11 | ㅍ | —      | 33 | 꺾     | — |
| 12 | ㄴ | —      | 34 | 술     | — |
| 13 | ㅂ | —      | 35 | 꺾     | — |
| 14 | ㅁ | —      | 36 | 꺾     | — |
| 15 | ㄴ | — 또는 — | 37 | 보ㅎ    | — |
| 16 | ㅂ | —      | 38 | 꺾     | — |
| 17 | ㅂ | —      | 39 | 꺾-[꺾] | — |
| 18 | 꺾 | —      | 40 | 살     | — |
| 19 | ㄴ | /      | 41 | 술     | — |
| 20 | 발 | —      | 42 | 꺾     | — |
| 21 | 꺾 | —      | 43 | 노ㅎ    | — |
| 22 | ㅎ | —      |    |       |   |

이상의 예를 살펴보면 일단은 1음절인 고유어의 특이처격어는 ‘평성’의 성조를 가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서 앞에서 밝힌 성조 관련 선택 조건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문제가 되는 예들이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일단 ‘술ㅎ, ㅂ, ㅂ, 꺾, ㅁ, 길ㅎ, 꺾’ 등은 성조가 평성이 아닌 거성에 해당하는데, 이 중에서 ‘술ㅎ, 길ㅎ’은 소위 ‘ㅎ’탈락 체언에 해당하는 예이다. 그런데 ‘술ㅎ’은 실제로 특이처격과 결합한 예는 하나에 불과하고 ‘길ㅎ’의 경우에는 소위 주어적 속격에 해당하는 예문만 나타나서 일반적인 특이처격의 경우로 보기 어렵다. ‘꺾, ㅁ, 꺾’의 경우 역시 주어적 속격에 의해 ‘-이/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특이처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예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예문을 보면 다음과 같다.

8. (가) ㅎ ㅂ론 디 ㅂ드론 갓과 술히 살쥬미오 <法華2:105b>

(나) 客裏에 갈 고디 잇다니 도라오매 길히 어려오물 아로라 <杜詩3:30b>

(다) 누니 길히 平흠과 險흠과 꺾과 平흠과 通흠과 마고물 <원각하2-1:15a>

(ㄱ) 佛祖入 機緣에 ㄱ린 고더 이시면 이는 아로미 너터 <蒙山45a~b>

(ㄴ) 水想을 ㅎ야 므리 물곤 주를 보아 또 붉게 ㅎ야 <月釋8:6b>

(ㄷ) 纔람縹삼은 오시 허룬 양지라 <南明上32a>

거성의 경우 문제가 되는 특이처격어는 ‘밧, 봄’이다. ‘봄’의 경우에는 時  
 令에 해당하는 예외로 잡았던 예이고, ‘밧’은 時令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특  
 이처격어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면 ‘평성의 1음절 고유어’라는 특이처격어  
 의 조건은 ‘밧’의 예와 관련해서는 옳지 못한 기준이 된다. 다만 ‘밧’은 ‘발  
 치’가 축약된 것으로 본다면 본래 2음절어로 볼 여지가 있고 그 용례가 비  
 교적 많지 않은 특이처격어이다. 관련 예문은 다음과 같다.

9. (가) 잣 앓 보미 플와 나모쑤 기궐도다 <杜詩10:6b>

(나) 阿難과 羅雲은 바치 셋습더니 <月釋10:10a>

다음으로 특이처격어 중에서 성조가 상성인 1음절의 고유어로는 ‘꺄, 돌,  
 궐ㅎ, 궐, 돌ㅎ’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에서 ‘궐ㅎ, 돌ㅎ’은 역시 ‘ㅎ’탈락  
 체언에 해당하며 주어적 속격에 해당하는 예로서 ‘-이/의’가 나타나기 때  
 문에 특이처격으로 논의하기 어렵고, ‘돌’은 해당하는 예가 15세기 자료에  
 서 하나뿐이다. 관련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10. (가) 바꺄리 기궐 궐ㅎ며 궐궐 노궐 궐ㅎ니라 <金三3:59a>

(나) 물곤 ㄱ름과 프른 돌궐 佳麗호매 므스물 슬후니 <杜詩14:35a>

(ㄷ) 光明명 眞眞實씨ㅅ 모몬 상네 물ㄱ시며 므궐 드리 이시며 <金三  
 2:25a>

상성의 경우에도 志部昭平(1990)과 上保 敏(2007)에서 제시한 조건으  
 로 설명이 되지 않는 예가 있는데 ‘꺄’와 ‘궐’<sup>15)</sup>이다. 이 두 특이처격어의

15) ‘궐’의 경우에는 劉昌淳(1964:70)에서는 평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관련 자료를 확인

경우에는 15세기 자료에서 특이처격보다는 일반처격을 취하는 경우가 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명사인데 모두 상성에 해당한다. 志部昭平(1990)과 上保 敏(2007)의 주장을 전제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특이처격이 점차 일반처격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예들은 그 성조도 원래 평성에서 상성으로 변했을 것이라는 가정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평성에 해당하는 성조가 상성으로 변화한 이유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이 예들은 여전히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 관련 예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가) 하늬 ㅁ식 와 正히 꺾외히 잇노라 <杜詩5:7b>

(나) 公主ㅅ ㅁ 어득흔 고리 ㅁ는 煙霧ㅣ 췌느니 <杜詩15:46a>

이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특이처격어의 조건을 성조와 관련하여 설명하는 것이 일견 타당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조건이 결합되어 있어서 복잡하고 예외가 많으며, 이러한 조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1음절의 고유어에서 검증한 결과 또한 몇몇 예외가 발견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5. 결론

지금까지 특이처격어 중에서 고유어를 중심으로 15세기 자료에 나타나

---

해 본 결과 상성에 해당한다. 특히 ‘꼴’의 경우에는 합성어를 이룬 경우에도 역시 상성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성조의 변화가 없다. 관련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谷 :꼴 곡<訓蒙(叡山本)上:2a>, 谷 :꼴 곡<訓蒙(奎章閣本)上:3a>, 밋:고·래 <釋詳 6:4b>, •비얌:꼴 <龍歌6:43a>

는 처격 조사의 선택 양상을 분석하고, 특이처격어의 조건을 성조와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하는 주장의 타당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15세기 자료를 중심으로 확인한 결과 처격을 취한 용례가 나타나지 않는 명사가 전체 97개 중에서 13개로 이에 대한 분석은 불가능했다. 이를 제외하고 84개를 중심으로 처격 조사의 결합 양상을 파악해 본 결과 전형적인 특이처격어로 분류될 수 있는 명사 37개, 특이처격어보다는 일반적인 명사로 분류될 수 있는 명사 33개, 그리고 특이처격과 일반처격을 모두 취하는 명사 14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을 목록으로 제시하면 각각 다음과 같다.

[목록] 전형적인 특이처격어(37개)

낫, 목, 갯, 우호, 앞, 밧기, 쪽, 밧, 새박, 나조호, 봄, ㄱ술호, 적, 밧, 느르/늘, 구무, 물, 나모, 잇, 섬, 콩, 국, 보호, 므르, 시르/실, 독, 살, 술, 노호, 빗뚫기; 겉, 녀, 밑, 아춤, 밤, 집, 돛기[蓆]

[목록] 일반처격을 주로 취하는 특이처격어(33개)

술호, 손바당(손바당), 안호, 돌, 날, 설, 하늘호, 굴형, 굴, 섬, 뵤호, ㄱ름, 짜호, 돌호, 물, 물결(물결), 심, 길호, 수풀, 술, ㄱ르, 터호, 우물, 브름, 옷, 긴호, 갈호, 값늘호, 열여름, 쉼, 설흔; 곧, 그릇

[목록] 특이처격과 일반처격을 모두 취하는 특이처격어(14개)

불호, 니마호, 터럭, ㄱ, 낫, 므술호, ㄱ을호, 흙, 골, 무덤, 꽃, 브섬, 뒷간, 거적

또한 특이처격어의 조건을 성조와 관련하여 논의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고유어의 1음절 특이처격어를 중심으로 검증해 보았다. 검증 결과 상당수의 특이처격어의 성조가 평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예외로 존재하는 명사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얻었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劉昌惇, 『李朝語辭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64

21세기 세종계획 15세기 국어사말뭉치.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4 옛말과 이두』, 어문각, 1992.

### 2. 논문

박진호,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998, pp.121~205.

李崇寧, 「中世國語의 特異處格 ‘-이’, ‘-의’에 對하여」,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9, 大韓民國學術院, 1980, pp.101~136.

崔世和, 「處格의 變遷-‘이·의’를 中心으로」, 『國語學論攷』, 1987.

洪允杓, 「十五世紀國語의 格研究」, 『國語研究』 21,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학연구회, 1969.

황선엽, 「고대국어의 처격 조사」, 『한말연구』 18, 한말연구학회, 2006, pp. 305~328.

上保 敏, 「15세기 한국어의 처격체계」, 『口訣研究』 18, 口訣學會, 2007, pp.289~315.

### 3. 단행본

고영근, 『개정판 표준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2004.

李崇寧, 『中世國語文法-15世紀語를 主로 하여』, 乙酉文化社, 1981.

志部昭平, 『諺解 三綱行實圖研究-本文·校註·翻譯·問題篇』, 東京 汲古書院, 1990.



## Abstract

# A Study on Korean Nouns Taken Peculiar Locative Case in the 15th Century

Park, Hyeong-woo

This paper aims to confirm the real state of special nouns that become known to take the locative case '‐αι/ιι[‐ι/ι]' in the 15th century, to verify the theory about conditions of nouns are taking '‐αι/ιι[‐ι/ι]' as the locative case.

The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

Firstly, the combination state of nouns that take '‐αι/ιι[‐ι/ι]' as locative cases are classified as follow.

a. Nouns that mostly take '‐αι/ιι[‐ι/ι]' as locative case

낫, 목, 갓, 우하, 얹, 밧기, 쪽, 밧, 새박, 나조하, 봄, ㄱ술하, 적, 밧, 느리/놀, 구무, 물, 나모, 잇, 섬, 쿡, 국, 보하, 믹리, 시르/실, 독, 살, 술, 노하, 빗돗기; 겹, 녁, 밧, 아춤, 밤, 집, 돗기[蓆]

b. Nouns that mostly take '‐αι/ιι[‐애/에]' as locative case

술하, 손바당(숯바당), 안하, 돌, 날, 설, 하늘하, 굴형, 굴, 섬, 뵈하, ㄱ름, 짜하, 돌하, 물, 물결(물결), 십, 길하, 수풀, 술, ㄱ리, 터하, 우물, 벚름, 옷, 긴하, 갈하, 값눌하, 열여덟, 원, 설흔; 곧, 그릇

c. Nouns that take both '‐αι/ιι[‐ι/ι]' and '‐αι/ιι[‐애/에]' as locative case

불하, 니마하, 터럭, ㄱ, 낫, 믹술하, ㄱ을하, 흙, 골, 무덤, 꽃, 브쉽, 뵈간, 거적

Secondly, the theory that the pitch accent of noun decide selection of locative case cannot trust. This theory is appropriate in most of related nouns. But this theory cannot solve the problem about exception of related nouns.

Key-words : Locative cases, Noun taken peculiar locative case, - $\lambda$ i/ii[- $\epsilon$ ]/  
의], Pitch accent, Morphologically conditioned allomorph,

박형우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 (363-791) 충북 청원군 강내면 다락리 산7번지 한국교원대학교

전화번호 : (043) 230-3549

전자우편 : phwcgs@knue.ac.kr

|                                                                              |
|------------------------------------------------------------------------------|
| 이 논문은 2010년 10월 31일 투고되어<br>2010년 12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br>2010년 12월 15일 게재 확정됨. |
|------------------------------------------------------------------------------|